

환경설계교육에 있어 조형예술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오웅성

삼성에버랜드(주) 환경디자인센터 수석디자이너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Implementation of
“Plastic Arts” in Environmental Design Studio Programs
- Focused on the Cases of France and Korea -

Oh, Woong-Sung

General Project Manager, Environmental Design Center, Samsung Everland Inc.

ABSTRACT

Creative spatial production in Environmental design relies, in large part, on the artistic talent of the designer(s) that is applied to the design solutions or schematic plans. This study proposes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use of “Plastic Arts” or the technique of artistic manipulation and definition of space in Environmental Design studio programs.

This fundamental design approach is currently lacking in Korean design studio programs. Moreover, the current trend of interdisciplinary design (that is,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rchitecture, urban and environmental planning)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ch techniques. “Plastic Arts” techniques can serve as a basic code of communication between design disciplines and can in itself be a common approach.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empirical datas, that is, the educational performances which are executed in Landscape studio programs of some Korean Universiti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program, “Plastic Arts”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ic organization of Landscape design studio programs.

2. Unlike France where "plastic Arts" program is implemented through out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s in Korea, "Plastic Arts" should be intensified and continued for longer period of time for students in the initial years.
3. In creation of "Plastic Arts" programs for Korean Landscape Design studios, th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values of aesthetic of the Nature should be taken in consideration.
4. In order to confirm the necessity of "Plastic arts" program in the organization of landscape curriculum, more studies should be done, with empirical datas.

Key Words : Use of "Plastic Arts", Environmental Design Studio Programs, Interdisciplinary design, Basic code of communication, Common approach.

1 시작하는 글 : 조형예술연습, 환경설계의 기초교육

조경, 건축, 도시, 교통, 흔히 우리는 이들을 환경을 창조하고 보존해 나가는 일을 위한 물적 환경과 문화적 도시생활기반 계획과 설계에 관계되는 소위 환경관련 전문분야라 말한다.

실무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른바 '프로젝트' 라는 방법(*Project-Method*)을 통해 계획과 설계에 관계된 전문적인 행동을 구체화하고 전문가의 문제 분석과 해석을 개념화 하며 나아가 구상화(具象化)시키는데 우리는 이를 통상 설계(또는 계획)과정이라 한다.

기실, 이 설계과정은 초기단계에 있어 물적 환경의 분석과, 최종단계의 환경구상에는 현실에 발을 디딘 상당한 공간적 상상력과, 형태의 조형적 번역이 요구되는 크게 보아, 이 두 단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능력과 상상력은 많은 경우, 설계의 결과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며 환경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설계능력(*design ability*)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환경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설계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분석능력과 조형적 상상력은 실무를 통해서 배양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우선 학교교육에서부터 개발되고 실험되어 진다고 하는 편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공간의 분석력이나 조형적 번역작업은 결국 공간지각력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지각력에 대한 훈련은 위에서 든 환경관련 분야중 특히 조경 및 건축분야에 있어 설계교육과정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설계교육기초 내지는 환경관련분야의 공통된 기초설계과정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

다. 조형적 훈련이 주가 되는 이러한 공통 기초설계과정은 조경이나 건축 그리고 도시전문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관문이자 학생을 위해서는 본인의 조형감각을 시험하고 각자의 설계적성을 조기에 변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형'과 '조형예술'에 관해선 아래에서 설명되어 진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조경, 건축관련 대학 및 디자인 스쿨에서는 학부의 저학년엔 조형예술과 관계되는 드로잉연습, 조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바, 조형예술 프로그램은 조경, 건축, 도시 등 각 전문분야에 있어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디자인교육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이 뿌리가 견고해야 나무도 잘자라고 뻗어나가듯 기초교육이 체계적으로 밑받침 되어 있어야 공간디자인을 위한 인체가 배출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디자인교육 자체가 위협속에 있게 될 것임은 논리적인 설명이 따로 필요치 않는 상식에 속한다.

우리가 흔히 미국이나 유럽의 디자인 교육의 질을 얘기할 때 '기본이 바로 선' 체계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체계란 바로 디자인 교육의 기초과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합리적인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환경관련 분야 또는 각 전문분야가 제대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본고의 논점에 비추어 말할 때, 그 답은 역시 디자인 교육에서부터 일차적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조형감각에 대한 훈련은 디자인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로서 감각을 연마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는데 있어 필수

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조경을 비롯한 환경설계관련 대학의 교육과정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태생'이나 풍경화, 디자인론, 색채학실습 등 부분적으로 조형연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나 필요에 따라 산발적인 방식으로 개설되는 구색맞추기 경향이 조형훈련을 위한 년차별, 체계적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 학부제실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진정으로 한 사람의 유능한 환경디자이너를 길러내기 위해서 최소공배수 개념의 조형연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또한, 과감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본질적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교육의 기초로서 조형연습(조형예술프로그램)은 환경분야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공간을 상상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통된 감각 즉 공감(*Sensus communis*)을 형성케 하여 결국, 조경디자이너와 건축디자이너 나아가, 도시디자이너가 한 자리에 서로 만났을 때 '척하면' 알아듣고 서로 통하는 말하자면, '코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된다.

이 글에서의 목적은 학부제와 같은 관련분야의 통합적 교육방식이 강조되는 지금 조경, 건축, 도시 등 환경설계분야에 있어서 조형예술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국내의 유사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정량적 비교분석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에 있는 것은 아니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경험론적 사실(실험된 조형연습 프로그램)을 설명, 해석 또는 분석의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사실을 확연히 하는 과정을 밟고자 한다.

II. 조형예술프로그램과 환경설계교육

1. 조형예술 연습프로그램, 왜 필요한가?

형태를 만들어 가는 미적 또는 예술적 방법의 습득이라 할 수 있는 조형예술연습은 인간의 미적 체험의 형상화가 그 주내용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미의식, 미적 동기, 공간에 대한 체험 그리고 공간적(또는 장소적) 체험의 조형적 표현이 중요한 과

정이 된다. 환경설계는 비단 아름다움의 문제 즉 미적 접근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다중적인 해결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적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한 장의 평면이나 입체로 결과를 보여주는 설계의 본질적인 실행성(Performance)으로 비추어 볼 때, 결국 새로운 형태의 제안과 같은 보다 창조적인 작업에는 현실에 바탕한 조형적 해석력이 필요하게 된다.

환경설계가는 공간과 장소, 자연과 도시 그리고 인간과 이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 형태, 장소의 체험, 자연의 개념, 도시의 기능과 미래를 해석하고, 개념화하며 나아가 공간적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전과정에 개입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직능이라 할 수 있다. 이 전과정에서는 많은 경우, 사회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전문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설계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 공간의 구성이나 설계의 동기에는 때에 따라 아주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라는데 큰 의의가 없을 것이다. 설계에 있어 공간의 디자인은 결국 설계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무관하지 않고, 설계의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두 가지 동기가 적당한 긴장관계로 유지될 때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내적 동기(*Internal motivation*)란 바로 설계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미적 의식 그리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즉 '예술화'(*artialisaton*)²⁾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 가치, 공간적 맥락, 정치.경제적 상황 등 소위 환경설계(프로젝트)를 둘러 싸고 있는 외생적 변수에 따라 환경설계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결과(공간적 형태)가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데 이를 외적 동기(*External motivation*)라 부를 수 있다. 내적 동기가 공간과 장소에 계재된 미적, 예술적 가치 나아가 문화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외적 동기는 공간과 장소에 계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화'란, 프랑스 조경미학자 알랭로제 (Alain Roger)의 조경미학이론중 핵심어에 해당한다. 우리말에는 다소 생경하게 들리는 '예술화'는 불어 *artualisation*(“악시알리자씨용”)의 번역에 해당하는 말로 '예술'의 형성사에 해당하는 *artial*(“악시알”)-

의 행위명사화 어미인 (*isation* (“자씨용”)의 결합명사로서 신조어이다. 예술화란 인간내면에는 본질적으로 미의식(*schéme esthétique*)이 있다고 전제할 때, 이를 밖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해석과 분석이 가해지고 추상화되기도 하는 ‘표현과정’(*processus d’expression*)을 말한다. 알랭 로제(Alain Roger)에 의하면, 예술화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모델에 의거하는바, 직접모델(*modèle direct*)과 간접모델(*modèle indirect*)이 그것이다. 직접모델이란 예를 들어,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정원, 의상, 화장(化粧) 등 행위의 직접성, 현장성과 관련되며 미의식이 그것이 표현되는 대상과 거리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대로, 간접모델은 미의식이 대상에 바로 표현되기 보다 어떤 매개체를 통해 표현되어 지는 방식을 말하는데 문학, 음악, 회화, 서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간접모델은 표현되는 또는 재현되는 대상과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거리’(*distance* : “디스푹스”)가 존재하며 사람과 대상(자연, 정원, 건축, 도시)은 이 ‘거리’ 관계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직접모델과 구별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환경설계가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설계 동기의 해석과 종합 그리고 자기조절을 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훈련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조경, 건축 등 환경설계 관련분야의 설계교육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동기 즉, 두 가지 설계 가치를 조화시키는 기술과 개념적 접근에 관한 내용이 두 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하며 나아가 이 두축이 합점을 이루는데에서 환경설계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찾아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내적 설계동기는 다분히 설계가 개인적인 조형훈련과 관계 깊으며 외적 설계동기는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설계가와 사회와의 관계 즉, 대상공간과 관련하여 사회를 보는 눈이나 사회전반에 관한 이해 등과 관계된다.

본고는 위에 전제된 두 가지 설계동기를 보편적으로 보는 시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서는 보다 설계가 내적인 동기에 의한 설계가치의 추구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훈련의 한 과정이 ‘조형예술연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본격적인 설계교육의 기초과정에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내적 설계동기 측면의 교육

에 있어서는 우선 개인적인 공간과 장소에 대한 환경적 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체험은 설계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하나의 유추나 은유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훈련으로 이러한 확인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과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기내부에 저장된 공간적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확인 과정에는 예를 들어 개념이나 기억을 다시 구성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 즉 재현(*representation*) 또는 인간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이를 보다 미적으로 표현하되 극단의 경우, 원래의 모습(*forme originelle*)과 관계를 맺지 않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될 수도 있는 ‘변형’(*transformation*) 등의 방법이 필요하고 인간의 존재기반이자 조경, 건축, 도시의 전제이기도 한 ‘자연의 몸’으로서 땅 즉, ‘대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대지를 닮은 인간의 몸과 그 ‘몸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색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바람직한 환경설계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설계의 특성으로 볼 때 공간에 계재된 시간을 해석하고 예측하며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제안에 대한 시험과 모색이 필요한데 공간적 형태를 시간적으로 해석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서 나아가 다른 형태를 창조하는 과정(‘공간적 형태의 시간화’)과 반대로, 시적인 분위기, 서정적인 풍경, 행위 기타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에 의한 환경인식에 속하는(보다 경관의 주제에 가까운) 내용을 구체적 형태로 나타내 보이는 과정(‘시간적 형태의 공간화’)라는 두 과정이 그것이다.

실제 대상지 또는 가상의 공간을 전체로 한 조경, 건축, 도시스케일에서의 형태에 대한 탐색과 연구와 미적, 예술적 해석과 공간적 표현이 그 내용을 이루는 조형예술연습은 따라서 ‘체험공간의 제구성’, ‘누드드로키’, ‘공간적 형태의 시간화, 시간적 형태의 공간화’와 같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훈련과 조형적 실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조형적 접근은 단순한 해석이 가미된 예술적 의지의 공간적, 미적 표현에 그친다기 보다 앞서 전제한 두 가지 설계동기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하며 나아가 외적 설계동기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사회적 가치(외적 동기)를 조형적으로 수용 또는 극복하게 되는 결과에 이

르게 함으로서 두 가지 설계가치를 조화하게 되는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설계의 질을 향상시키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설계를 함에 있어 디자인의 근거 내지는 실마리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계기에 속한다. “환경디자인은 우연의 필연이자 상식의 전문화이며 창조될 이미지의 실마리”(김영대 1998: 131)라고 할 때, 실마리의 탐색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세련된 결과로 이끄는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역시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환경설계교육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조형예술연습이 그 주요 대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외연을 좀더 확장시켜 본다면 “현대미술과 건축에서 그 형태와 기법을 모방한 모더니즘 조경의 한계는 모더니즘조경 자체의 미학을 정립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조경진 1992, 20(3): 79-92)는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조경미학은 다분히 형태의 창조에 대한 지적인 탐색과 실험과정이 필요한 바 이는 조형예술연습으로 부터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조형예술연습은 경우에 따라 조경, 건축 등 분야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하는 동기유발을 부여하게 된다. “조경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는 용이하지 않다. 특히, 그 시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개인의 양식에서 시대적 양식을 기초할 수 있는 특성으로 발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왜냐하면, 조경설계는 지적, 예술적 창조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이다”(김영대 1995, 22(4): 61).

2. 조형예술과 조형예술프로그램

1) 조형예술이란

여기서 ‘조형’이라함은 형(shape)과 형태(form)에 관계되는 미학적, 예술적, 기술적 차원을 공간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recomposition), 재현³⁾(representation), 변형(transformation)⁴⁾하여 표현(expression)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이라 함은, 사상, 개념, 의식등을 밖으로 드러내어 외면화, 객관화시킴으로서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론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적 의식을 드러내는 방법적인 체계를 미의식의 표현방법이라 얘기하고 여

기에는 그림, 문학, 음악 그리고 정원 같은 비구상적, 구상적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미의식의 표현은 곧잘 ‘경관’ 개념속에 게재되며 이 경우, 경관미의 표현모델이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각 시대의 지배적인 종교와 종교적 가치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등이 고려 요소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경관미의 표현모델은 정원이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계구성이라 함은, 사물의 인식은 보통의 경우 형상의 모든 관개나 구조를 모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공간적 형태 또는 장소를 사람이 선택적으로 인식한 심상 즉 이미지로 파악하기 쉽다. 이미지로 파악된 심상은 이미 그 자체가 사람의 미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미지로서 사물은 앞서 말한 ‘예술화’(artualisation)의 논리를 빌어 말하자면, 해석의 방법에 따라 원래의 모습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도 다른 형상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다른 형상이란 대개 본래 모습의 추상화나 은유화의 경향을 띠게 됨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폴리주⁵⁾나 몽티주⁶⁾의 기법 또는 조각이나 모빌 등 입체로 형상화시켜 보일 수도 있고 또한, 평면구성으로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 환경설계에서 ‘계구성’의 의미는 주로 장소나 공간의 환경예술적인 방법에 의한 계구성에 관한 것으로 여기면 큰 대과는 없을 것이다.

‘재현’에 대해서 Corner는 재현의 두 가지 범주를 상징적인 재현(symbolic representation)과 도구적 재현(instrumental representation)으로 나누고 있는데(이광빈, 조정승, 1999, 73(4): 56) ‘조형예술’이란 조형과 관계된 예술적인 방법(*facon, maniere*)으로서 2차원적, 3차원적인 형(shape)과 형태(form)에 대한 탐색과 연구 그리고 실험을 수반하는 공간적, 시간적 형태에 대한 지적인 노력과 창조행위로 말할 수 있다.

조형예술에는 시간적인 형태(*forme temporelle*)와 공간적인 형태(*forme spatiale*)라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이론적 범주가 논의되며(Berque, 1993, 22-26) 조형예술의 형태론과 표현기법이 포함된다. 시간적인 형태는 물리적 형태와 반대되는 형태개념으로서 순서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리요소(음악, 자연의 소리, 인간의 소리 등), 자연현상(마름, 낙조, 비, 구름, 나무나 풀 흔들리는

모습, 안개나 연무 등) 그리고 축제와 제의, 풍속 등 인간의 행태적 차원도 포함이 되며 소위 문화적 사건 즉, “이벤트”와 관계된다. 공간적 형태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개념으로 물리적 형태 또는 고정된 형태,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서 개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둘 것은 앞서 말한 두 가지 형태, 정확히 말해 시간적 형태와 공간적인 형태의 역동성(dynamism)에 의해 바로 경관개념이 재해되는데 특히, 시간적 형태(*forme temporelle*)와 관계가 깊다는 사실이다.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이를 조형예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어 참조할 만하다(Panofsky, 1975(1924): 183-196, 223-233).

시간적 형태와 공간적 형태개념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의 역사적 관계나, 같은 인식속에서 경관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는 프랑스의 사회철학자(Michel Foucault, 1969: 216-231), 문화지리학자, 조경가들(Lassus, 1994: 83-106)의 논의를 따른 것이며 그 중에서 특히 현재 파리국립사회과학대학원(*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de Paris*: E. H. E. S. S.) 교수로 있으며 도시경관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오규스탱 베크(Augustin Berque)의 이론은 환경설계의 논의에서 볼 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erque, 1993: 22-29). 다소 철학적인 논의를 수반하는 오규스탱 베크(1993)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이론은 그의 저서 “행태에서 도시까지: 일본에 있어 도시형태와 사회관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는 일본의 건축가 세오 푸미야키를 인용하면서 두 가지 방식의 공간성²⁷⁾이 있다고 보는 바, 그 하나는 정적인 공간으로 ‘완료된 형태’(*l'objet fini*)²⁸⁾와 다른 하나는, 동적인 공간으로 ‘계속적인 과정’(*le processus infini*)²⁹⁾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후자 즉 계속적인 과정으로 파악되는 동적인 공간개념이 전자보다 더 중요하며 동적인 공간은 이른바 ‘공간속의 시간’을 전체하게 된다. ‘공간속의 시간’이라함은 무대와 같이 존재하는 완료된(또는 고정된) 물체로서 건축 등의 공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 시간의 스케일 -예를 들어, 일출 밤과 낮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등-에 따라 사람이 그 속에서 벌이는 관습적 행위로 인하여 정

형적인 형태가 아닌 비정형적인 움직이는 형태, 변모하는 모습으로 인식된 형태일 때 그 형태는 완료된 공간적 형태에서 계속 변화하는 시간적 형태로 인지되는데 이때의 시간을 ‘공간속의 시간’이라 한다. 인간의 행위는 그 공간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습적인 행위양식과 크게 관련되어 있으며 풍속, 습관, 제의, 세대별·일반적인 행위양식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양식은 ‘사회’라는 장소에서 반복되어 누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사회관계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물리적 형태는 주어진 공간적인 전제로 볼 수 있고 공간적인 존재의 사용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의 형태로 인식될 때 이를 바로 시간적인 형태 곧 고정된 형태가 없는 과정으로서의 연속체 내지는 ‘이벤트’ 즉 사건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공간속에 시간을 드러냄’³⁰⁾이 중요하게 된다. 공간속에 시간을 드러낸다 함은 문학적인 방법이나 다른 제2, 제3의 문화적인 방식(모임, 축제 등)으로 자연, 도시, 정원을 찬상하고 노래하는 등 일련의 행위적 ‘노출’(exposition) 내지는 ‘수행’(execution)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경관의 문제와 조형예술적 관점의 관계는 오규스탱 베크가 말한바 산악의 미화와 미적 동기의 발현으로 축약시켜 볼 수 있다. 경관의 발견(경관개념의 태동과 직결됨)과 진화에는 그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가치에 영향받은 조형예술적 방법론이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 나아가, 각 문화권에 따른 경관의 논리를 배태하게 되었다(Augustin Berque, *op. cit.*,: 84-85).

조형예술적 관점에서의 두 가지 형태와 경관개념은 본고에서 주로 논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기 보다 좀더 긴 논의를 요하는 주제이므로 다른 기회를 빌어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2) 조형예술프로그램의 범주

조형예술 프로그램의 범주는 경험적 사례로 볼 때 대략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그 분류체계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 프로그램운영 대상 및 성격(학기강의, 디자인워크숍 등)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범주로 조형예술(plastic arts)에는 조형예술과 관계되는 내용과 이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기법의 두 범주가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 조형예술프로그램은 표현, 이해, 해석, 선택방법의 습득과 관련되며 강의과목, 세미나 및 실습, 조각실습 등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강의과목에는 크게, 크로키와 크로키실습, 형태언어, 공간개념 등에 관한 렉취(강의)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조형예술프로그램은 기초조형(basic course in plastic arts)과 응용조형(applied course in plastic arts)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초조형에는 “체험공간의 조형적 재구성”, “대지의 이해”, “시간적 형태의 공간화”, “공간적 형태의 시간화”, “누드크로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응용조형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분석결과에 따른 공간적 문제의 조형적 극복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주로는 위에서 말한 환경관련 분야 설계교육에 있어 기초설계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4주 (또는 8주)의 리듬으로 순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형식을 말한다. 이 범주의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시공간적 상상력”(제1주), “물, 땅, 장소, 경관” 또는 “조경과성”(제2주), “토포스(Topos)¹¹⁾-대지의 이해”(제3주), “상황의 이해와 연출 : 상황으로서 외부공간”(일시경관 또는 설치정원 작업 : 제4주) 등의 내용이 근간을 이룬다.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연필, 펜, 목탄 등을 이용한 평면, 스케치 등 소위 드로잉이 기본이며 여기에 앞서 말한 폴리머나 몽타주 구성 등의 기법과 조각, 개념모형 등 입체사용으로 더욱 조형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폴리머, 몽타주, 구성이 모두 ‘드로잉’이라는 범주속에 속하게 된다. 조경 분야에 있어 조형예술의 한 표현기법으로서 “조경드로잉의 의미는 설계교육이나 실무에서 전통적인 드로잉과 새로운 실험적인 드로잉, 드로잉과 만들기의 균형적인 활용과 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조경진, 1999, 27(2): 150).

다음에서 말하게 될 환경설계교육에 있어 조형예술 연습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러한 균형적인 조형활동 즉, 그리기와 만들기가 병행되어 편성되어야 함은 원칙이라 하겠다.

3. 환경설계교육에 있어 조형예술프로그램

1) 조형예술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몇 가지 전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의 배열배치방식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경관을 만들게 되고 경관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의 속성을 설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본고에서는 설계교육과정에 있어서 조형예술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환경관련 분야에서는 아직 그 구체적, 체계적 경우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외 사례에서 그 모델을 구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먼저, 국내엔 아직 정보가 부족한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조경, 건축, 도시교육에 있어 기초필수과정으로서 조형예술연습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디자인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몇몇 조경관련 대학에서 시행한 조형예술연습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서 조형연습의 필요성과 나아가 그 중요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적으로, 본고에서 조형예술프로그램이 담아야 할 내용과 중요한 아이디어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 공통되게 적용하는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나 그렇다고 조형예술프로그램에 조경이나 건축과 관계된 그 나라 그 사회의 현대적, 전통적 조형예술적 가치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과나 내용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본적인 논리로 작용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조경’이나 ‘건축’ 나아가 ‘도시’라는 대 주제들이 이미 양복입고 시는 우리들 즉 지금의 ‘서양화된 한국인’의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보편적인 환경적인 사실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맥(전통의 문제 또는 전통적인 ‘우리의 공간예술적 가치관’)을 찾고 탐색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윤리적 의무가 있으나 설계 교육과정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담아내어 한꺼번에 풀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가운데 조형예술프로그램에 한국인의 땅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 땅과 인간과의 관계성(예를 들면, 풍수의 논리성과 은유성) 등 말하자면, 기계적인 형태, 기하학과 같은 관념적인 형태의 탐색보다는 한국의 땅을 닮은 부드러움과 인간미, 여유 그리고 여백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조형연습 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시험운영된 조형예술 프로그램의 소개를 통해 보다 한국화된 프로그램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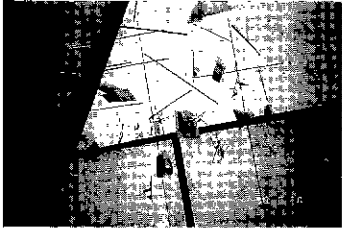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 국립조경학교, 조형예술과제전



그림 2 조형 워크샵(성균관대), 학생 발표장면



그림 3. 조형예술 워크샵(성균관대), 기억의 공간 형성화



그림 4. 기초설계 "대지의 이해" 올림픽공원의 이미지(목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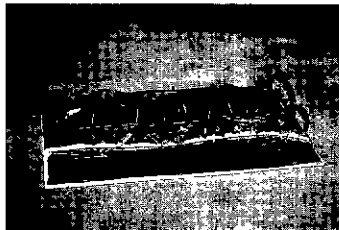


그림 5 기초설계 : 기억의 공간 조형작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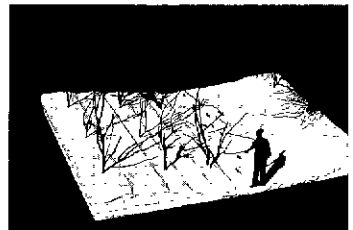


그림 6 기초설계 : 기억의 공간 조형작품화



그림 7. 기초설계(조형예술 입문), 조형작품과정(시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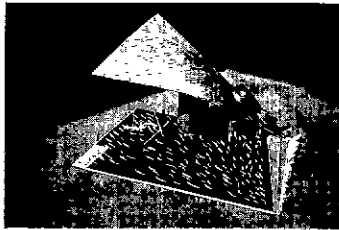


그림 8. 기초설계 : 기억의 공간 조형작품화(시립대)



그림 9. 기초설계 4주차 "건축과 조경"



그림 10. 기초설계 : 일시경관의 미장센느(Mise en scene)



그림 11. 기초설계(조형예술입문) 설치정원작품(시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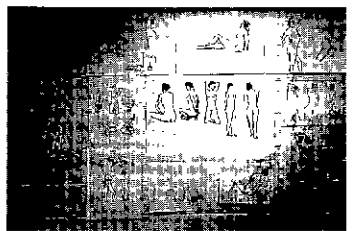


그림 12 누드크로키 실습



그림 13. 기초설계 : 설치정원 "빛나는 존재의 가벼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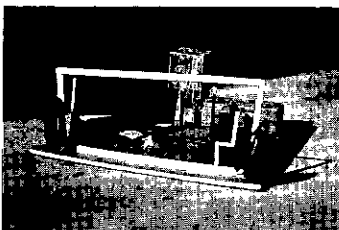


그림 14. 기초설계 기억의 공간 공간 조형작품화

과 운영의 논리를 설명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2) 프랑스 조경학교 설계교육과정에 있어 조형예술 프로그램

(1) 프로그램편성의 기본 아이디어

프랑스 백사이외국립조경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u Paysage de Versailles)를 예를 들어 보면,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론(주로 강의과목)과 프로젝트(조형예술실습 및 표현기법, 설계)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온전한 조경디자인어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 교육프로그램은 조경가에게 필요한 5개 분야의 집중적인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 들중 조형예술프로그램의 위치와 관련성을 프로그램의 열거를 통해 살펴본다.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들 5개 주요 프로그램들이 3-4년 동안 계속되는 연속성을 가지며 특히, 조형예술프로그램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기초에서 응용으로 초급에서 중급, 발전단계로 난이도와 완성도를 더해간다는 점이다.

(2) 5개 분야 교육과목과 조형예술프로그램

① 조경계획 및 아뜰리에(Theorie et Pratique du projet de paysage) : 4개 주제의 단기 소형프로젝트 연습 / 1100시간 / 1년

② 조경계획과 생태학의 응용(Ecologie appliquée au projet de paysage) : 식물생태계, 식물학, 공간의 지리생태학적 사실 등에 관한 학습 / 380시간 / 3년

③ 인문과학(Sciences Humaines) : 건축과 정원의 역사 그리고 조경, 인간과 사회관계학, 커뮤니케이션학, 조경법 및 제도 등 / 380시간 / 3년

④ 조경계획 실무 및 시공(Technique de projet de paysage) : 부지정지, 식재, 가로장치물, 건축, 유지관리등 / 380시간 / 3년

⑤ 조형예술(Art plastiques) . 강의, 세미나 및 실습, 현대조각실습으로 이루어짐 / 380시간/ 3년

i. 강의 : 90시간/ 3년 - 크로키실습(누드크로키 포함), 구성의 개념, 형태언어, 색과 광, 경관의 구조

ii. 세미나 및 실습 : 140시간 / 3년

iii. 현대조각실습 : 40시간 / 3년 - 조각의 역사,

점토조각실습

iv 표현기법 : 105시간 / 3년 - 대생표현, 프로젝트의 기본구상 또는 개요작성, 개념전달 방법 습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경계획 및 아뜰리에(설계프로젝트시간) 과목에의 편중을 제외하고는 조형예술을 포함한 나머지 4개 분야의 비중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훌륭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밀반침 프로그램으로 조형예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조형예술프로그램은 크게 강의, 세미나 등 이론과목 그리고 표현기법 및 조각실습이라는 두 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실습은 주로 3차원적 입체의 조형을 통한 공간과 물체에 대한 감각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한국에 있어 조형예술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및 내용

국내에서는 환경설계관련 학교에서 위의 사례와 같이 체계적으로 조형예술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필자가 국내 2개 환경설계관련 대학(서울시립대, 성균관대)에서 1998년 2학기과 1999년 1학기에 시험적으로 운영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한다.

(1) 프로그램구성의 기본아이디어

앞서 살펴본 프랑스국립조경학교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조형예술프로그램은 국내 교육시스템, 조경, 건축, 도시에 관한 일반적인 공간가치, 대지와 자연에 관한 미의식 그리고 땅과 사람과 자연, 건축과 조경과 도시의 관계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미래지향적 해석적 시각을 조형적으로 실험해보게 하는 한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추진이 부가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조형연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땅과 경관, 장소, 사람의 관계성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라든가 올림픽공원의 해자부분을 전형적인 한국 땅의 아름다운 굴곡을 가진 대지로 보고 이의 이미지를 크로키¹⁰⁾(속사)하고 다시 도형과 색깔로 구성한다든가 나아가 조각이나 모형 등 입체로 나타내 보이는 과정이나,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건축과 조

경의 조화를 모색하는 아이디어를 수치와 방위로 표시되는 평면이 아닌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조형프로젝트'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원,건축유적과 이들을 배태하게된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접촉하게 되는 '여행프로그램' 이 추가된다.

(2)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 2가지 사례

① 사례 1 : 범주별로 제시한 조형연습 프로그램중 제 2 유형 (기초조형/응용조형)

- i. 대상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4학년 진급학생
- ii. 기간 : 1999년 1월 8일 - 2월 26일 매주 금요일 오후 1시-6시
- iii. 목적 :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작업에 임하기전 준비단계로서 공간과 시간, 대지에 대한 이해와 대지의 여러 잠재력과 문제점을 조형적인 방법으로 분석 및 해석하는 새로운 '프로젝트프로세스' 를 체험케하고, 브레인 스토밍, 조형적 훈련 및 표현능력의 배양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졸업작품대상지의 조형적 이해, '발명적인 분석'¹³⁾(analyse inventive, Lassus, 1994 : 83), 문제점의 조형적 극복 가능성 및 최종 결과물의 다양한 표현의 유도과 동기유발에 기여함이 조형예술워크숍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있다.

iv. 진행방식

본 조형예술연습은 조형연습과 관련된 이슈 및 졸업작품관련 설계적(또는 계획적)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과정으로서 각자로 하여금 자기 테스트와 동기유발 및 적성의 발견과정이 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그 방식으로 채용한다.

- 브레인 스토밍
- 센스훈련 : 소리요소(음악, 음향 등), 시각요소(그림, 만화, 비디오 등), 촉각요소(만져보기, 접촉하기), 후각요소(냄새맡기 등)
- 조형적 표현훈련 : 평면, 입체, 구성 및 플라주, 데생 및 크로키

v. 프로그램 편성의 원칙

기초조형(1차 조형연습 4주 - 1월)과 응용조형(2차 조형연습 4주 - 2월)으로 구분한다. 기초조형은 개인적인 체험공간의 '조형적 형상화(=입체화)', 플라주, 목탄데생 등의 초보적

인 조형입문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응용조형은 각 팀별 졸업작품대상지를 바탕으로 대지의 잠재력과 맥락을 '시간적 요소의 해석'(경관 및 분위기), '공간적 요소 및 건축적 요소의 해석', 그리고 '사회적 요소의 해석'을 통해 집어 보고 이들을 종합하여 '대지의 문제점' 과 '조형적 극복 가능성'을 표현해보는 과정에 비중을 둔다.

vi. 각 과정별 표현방법 또는 원칙

- 구체적인 대상 또는 형상에 근거한 은유(metaphore), 추상화(abstraction) 및 단순화(simplification) 그리고 심상화(imagination)를 표현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다. 또한, 공간과 장소의 분위기, 소리요소, 자연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별 개별(또는 그룹별) 결과물은 공히 '작품설명리포트' ("디스크립티프" *descriptif*)와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디스크립티프"는 개념, 작품과제의 아이디어, 표현과정 또는 방법, 재료 그리고 작품구상 스케치 또는 크로키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크립티프"의 작성은 본문 3-4페이지 정도로 하며 표지는 주별 과제명, 간단한 삽화, 이름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워드프로세스로 작업한다.

vii. 조형예술 연습의 기본방향.

각 주별 과제는 평면(스케치, 크로키, 구성, 플라주 등), 입체(조각, 모빌, 모형 등) 그리고 조형이미지 표현(비디오, 음악, 무용, 사진, 그림, 문학 등을 보고, 듣고, 읽고서 이미지를 조형적인 방법 - 은유, 단순화, 추상화 - 으로 표현)에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② 사례 2 : 범주별로 제시한 조형연습프로그램중 제 3 유형(4주 단위 순환프로그램성격의 기초설계방식)

- i. 대상 :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1학년 학생 120명. 30명이 1 class로 4주 단위로 4 class(A,B,C,D)가 순환
- ii. 기간 : 1999.9월-12월 (16주)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iii. 목적 : 본 기초설계는 건축.도시.조경학부 학생

들을 위한 예비설계가로서의 조형입문으로서 기초적인 조형감각의 개발 및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형예술 아틀리에’ (atelier d’art plastiques)의 성격을 지닌다. 본 아틀리에에서는 땅과, 사람의 삶과 예술, 도시의 물상, 공간과 장소에 대한 지각력과 표현력, 상상력 그리고 각자의 ‘예술적 심상’의 공간적 재현에 중점이 주어진다 (전반부 2주). 다른 한편, 실제적인 측면으로 ‘대지의 이해’, ‘건축적인 풍경’, ‘풍경적인 건축’ 등의 주제를 통해 건축, 도시, 조경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를 건축, 도시, 조경의 스케일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경의 측면을 해석한다.

iv. 진행방식 · 아틀리에작업과 필드워크의 병행을 시도한다. 또한, 주별 과제는 각각 실제 현장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본 조형연습은 오리엔테이션, 이론 및 조형연습(4주)으로 구성된다. 매 첫주는 전반적인 소개와 이론강의, 제 1주 과제 연습

등에 할애되고, 나머지 3주는 본격적인 조형연습으로 진행된다. 조형연습 4주 (각 6시간)는 개인 또는 공동의 과제를 연습하게 되며 주별과제는 한 주전 예고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케 한다. 공동의 준비물은 스케치 또는 데생에 필요한 목탄, 4B연필, 붓펜 등과 수채화 또는 유화 물감 그리고 구상 등을 기록하기 위한 작품노트 등이며 매주 수업시간에 필히 휴대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4) 프로그램의 내용

가) 제 2유형(기초조형/응용조형)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1999년 등계조형예술 워크숍 (표 1).

나) 제 3유형 (4주 단위 순환프로그램성격의 기초 설계방식-조형예술입문) : 서울시립대 건축,

도시,조경학부 1998. 2학기 (9월-12월)(표 2).

표 1. 등계조형예술 워크숍

구분	일자	내용	결과물
기초조형 1999.1.8~1.29	1999. 1. 8 (제1주)	“본인의 체험공간의 조형화, 입체화”	디스크립티프, 모형 또는 조각 (석고, 점토, 동판)
	1.15 (제2주)	“대지의 이해. 땅의 형상” - 올림픽공원	디스크립티프, 모형, 스케치, 플라쥬, 크로키
	1.22 (제3주)	1 “시간적 형태의 공간화” 2. 누드크로키 ①	디스크립티프, 모형 또는 조각, 구성 또는 플라쥬 크로키(스케치북)
	1.22 (제4주)	1. “공간적 형태의 시간화” 2 누드크로키 ②	디스크립티프/조각/비디오/3D, Photo Shop/만화, 사진 중 택일 크로키(스케치북)
	1.30-31	TEAM SPIRIT-①. 정원기행 (진라도) -”정원, 남도예술, 정지”	리포트, 스케치, 이미지. 조형작품(조각, 모형, 컴퓨터 포토샵이미지 등) * 광주 남도문화예술회관 판소리공연 관람
응용조형 1999.2.5-2.26	1999. 2. 5(제5주)	졸업작품대상자 : “대지의 시간적 요소의 해석” - 경관, 분위기, 식물, 계절 등 -	디스크립티프, 크로키, 모형 드로잉(평, 단면, 스케치) 또는 비디오, 음악 등
	2.12(제6주)	“대지의 공간적 요소의 해석” - 공간구조, 맥락, 건축 -	디스크립티프, 조각, 모형, 드로잉 또는 컴퓨터그래픽
	2.19(제7주)	1 “대지의 사회적 요소의 해석” 2. 누드크로키 ③	디스크립티프, 문헌자료, 슬라이드 또는 시청각자료 크로키(스케치북), 조각 또는 모델
	2.26(제8주)	1. “해석 및 분석의 종합” - 프리젠테이션 및 크리틱 - 2. 누드크로키 ④	디스크립티프(종합), 시청각자료, 드로잉, 플라쥬, 모형 등 크로키(스케치북), 조각 또는 모델
	2.27-28	TEAM SPIRIT-②: 경상도·강원도 경관기행 - 히회마을, 정동진,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 -	리포트, 스케치, 이미지조형작품(조각, 모형, 컴퓨터그래픽, 사진 등)

표 2. 기초설계 - 조형연습입문 프로그램

주차	주제 및 개요
제 1주	<p>입문 : “설계의 동기” (motivations of design) 또는 “시공간적 상상력” -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왜, 왜 거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 깊었던 곳, 늘 친숙한 분위기 (기후현상, 본인의 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에 대한 ‘마음속의 공간과 시간’ 을 예술적, 조형적으로 변형해 나타내 보이는 과정
제 2주	<p>1주제 - “몸, 땅, 장소, 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이론 등을 활용한 땅과 몸과 경관의 관계를 해석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p>2주제 - “조경과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성의 개념은 남.여간의 행위로서 성 즉, ‘섹스’ 의 의미라기 보다 다른 종간의 어울림 즉, 공존된 조화 내지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 조경의 작업이란 호모적 또는 헤테로적 경관의 불균형, 불안정 내지는 변이상태에서 오는 마비성과 반자연성을 보정하고 개선하는데 매개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직능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악의 꽃에서부터 수선화까지, 비즈니스에서 포르노까지 또는 고상함과 저속함, 대로의 골목길, 맨션아파트와 달동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소음과 아리아, 채식지와 초지, 이 모든 상반되는 두 가치가 서로 공존되고 존중되는 환경, 공간, 장소가 가꾸어져야 한다는 비전에 본 과제연습의 이론적 배경이 있다 ※ 제 1.2 주제중 택일하여 운영가능
제 3주	<p>“토포스 (Topos) - 대지의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과 불의 어울림’ : 현장 방문후, 대상지중 본인이 선택한 국부경관을 지점토, 석고, 등판 등을 이용하여 조각으로 표현한다. 단, 지형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강한 메타포로 표현할 경우, 지형의 굴곡과 수경등을 함축적,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빌로도 나타낼 수 있다
제 4주	<p>“상황의 이해와 연출 - 상황으로서 외부공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간 조형연습을 실제 외부공간에서 종합 및 적용시켜 보고 조경과 건축, 조경과 예술과의 만남을 모색하는 가운데 환경설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본다 · 건축과 경관 내지는 조경과의 미적, 기능적 관계 (예: 건축+녹지, 건축+음악 또는 무용+정원 등) 및 환경적 관련성 (환경적 적응성, 어울림)을 이해하고 조형적 상상력을 통해 건축과 조경간의 미적 문제의 해결과 설계적 제약의 조형적 극복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환경문제에 접근한다 · 이 조형연습과제는 시간적 형태의 공간화 (건축+조경)와 공간적 형태의 시간적 해석 (도시+조경)이라는 건축과 도시와 조경의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기본의도가 있다 <p>다음의 3가지 방식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택일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도시+조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후, 개념이 담긴 일러스트 또는 크로키를 그리고 풀라주, 몽타주, 모형, 평면으로 표현 ② 설치정원에 의한 일시경관 만들기 - 캠퍼스내 하 장소에 ‘설치’에 의한 새로운 상황의연출 (미장센느 방법) ③ 정원과 다른 장르 (건축, 음악, 문학, 회화, 조각, 비디오, 사진, 의상, 섹스... 등)와의 접합을 표현 (‘설치’의 방법)

III. 결론

조경, 건축, 도시 등 환경설계분야는 공간사회적, 문화, 예술적, 정치,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도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설계분야의 디자이너들은 무엇보다 도시미 나아가 환경미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과 가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도시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설계디자이너는 공간에 대한 섬세한 지각력과 경관에 대한 조형적 미의식,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논리라기 보다 상식이라 할 것이다.

환경설계적 대안에는 여러 가지의 개념적 접근이 있

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공간적 문제에 대한 조형적 극복이다. 조형적 극복의 과제에는 조형예술적 접근이 시도되므로 조형예술은 단순한 관념의 유희나 실제 설계프로젝트의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뭇부림’ 이 아니라 설계가의 공간에 대한 감각을 배양시켜 주고 환경적 센스를 길러주는 디자이너 양성에는 필수적인 연습과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조경, 건축 등 환경설계분야에서 보다 조화로운 건축적, 경관적, 도시적 아름다움에 ‘관능적’ 이고도 ‘지적인’ 설계가들중에서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나온다고 볼 때 그들의 바탕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조형적 재능이 밀받침되고 있으며 대개 학교에서의 조형 예술 교육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본 조경분야

에 있어 프랑스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경우에 속한다.

국내 몇몇 조경 및 환경설계관련 대학 (학부제 시스템의 경우)에서 정규교과과정 또는 워크샵형식의 비정규적인 과정에서 시험적으로 조형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결과 학생들의 공통된 반응은 대상에 따라 달랐지만 대개 '건축, 도시, 조경에 공통분모로 작용할 공간지각력과 조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초설계-조형연습입문)라든가 '본인의 설계적 능력과 적성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 또는 저학년에 이런 조형예술연습과정을 체험했으면 더 유익했을 것'이라든가 하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시험적으로 운영해본 조형연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더 많은 시험운영을 거듭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은 조형예술프로그램은 디자인의 질 그리고, 디자이너의 질과 직결되었다는 점, 학교교육에서 조형예술 프로그램은 어떠한 형태로든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양질의 환경설계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서 '재능적 기반'이 필요하며, 조형예술은 최고의 개념이나 잉여의 개념이 아닌 최소의 개념, 기본의 개념으로서 갖추어져야 할 소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조경관련 대학 나아가 환경설계관련 대학에서 워크샵의 형태나 학부제시스템에서 기초설계와 같은 정규 교과과정속에 조형예술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저학년에게는 조경 등 전공분야의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의 적성시험의 계기 그리고 공간디자인에 대한 호기심 유발을 의도할 수 있고 고학년에게는 프로젝트준비단계의 연습의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입'이라는 뜻, 여러개의 이미지를 구성(*composition*)의 방법이나 아니면 일정한 구도의 설정없이 자유로이 붙여 새로운 상징적, 은유적 그림을 만들어 내는 미술작업.
- 주6. *montage* : 붙여 '올라 타다', '엮여 올리다', '조립하다'는 뜻 *monter*의 명사형으로 기본도형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사진 기타 화면을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그림으로 조립하여 나타내 보이는 작업.
- 주7. *spalit* "스파체알리페"(불)
- 주8 "yugen no kyakutai", Seo Fumiaki (1981), *Imi no kankyō-ron, Tōkyō Shōkokusha.*, p.147 Augustin Berque (1993). p.24 각주27에서 재인용.
- 주9. *mugen no gates*, ibid, 오규스텝 백크 전체서 p.25 각주28에서 재인용.
- 주10 "exprimer le temps dans l'espace", Augustin Berque, op.cit., p.25.
- 주11. *로코* 회랍어. '땅' 또는 '터'에 해당하는 말.
- 주12 *Croquis*, 붙여로 '빨리 그리는 그림' 즉 '속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밀묘사 보다는 대상의 형태를 짧은 시간내에 전체적으로 파악, 단순화, 의미화, 상징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경에 있어 대지의 파악, 경관 분위기의 묘사, 건축의 표현 그리고 전체 또는 국부의 이미지의 표현에 유리하다 '크로키'에는 펜, HB 그리고, 묵탄이나 붓 등이 표현에 적절한 도구라 할 수 있다.
- 주13. 세계적인 프랑스 조경가 베르나 라쉬 (Bernard Lassus)의 조경설계이론중 핵심어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분석의 결과를 은유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결과를 즉 대안으로 이끈다는 새로운 설계프로세스를 표방하는 중요 개념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경관분석이나 환경분석은 '분석을 위한 분석' (analysis for the sake of analysis)이므로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말과도 통한다. 베르나 라쉬의 조경설계이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obligation de l'invention, Du paysage aux ambiances successives in Augustin Berque(1994), sous la direction, Cinq propositions pour une thé orie du paysage*, pp 83-106

인용문헌

- 주1. Dessin, 붙여로 '그리는 모든 것 - 그림'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스케치' (sketch)의 의미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게 될 '크로키'와는 의미가 구분된다
- 주2 '예술화' 개념의 이론적 논의와 예술화와 경관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lan Roger(1978), *Nus et Paysage Essai sur la Fonction de l' Art*, Paris Aubier, pp 62-105(*Pulchritudo adhaerens, Pulchritudo vaga*).
- 주3. 위 본문중 내용의 설명을 참조하라.
- 주4. 위 본문중 내용의 설명을 참조하라.
- 주5. *collage* : 붙여 '붙이다'는 뜻 *coller* : 풀레의 명사 즉 '붙

- 1. 김영대(1995) 모더니즘조경의 설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4) ' 61쪽.
- 2. _____ (1998) 나의 디자인노트 · 개념짓기. 조경과 문화 LOCUS No.1 131쪽.
- 3. 이광빈, 조정송(1999) 텍스트로서 조경드로잉 -읽기의 통과 실제 -. 한국조경학회지 27(1)· 56쪽
- 4. 조정진(1992) 모더니즘조경의 특징, 전개과정.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0(3)· 89쪽.
- 5. _____(1999) 조경드로잉의 변천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150쪽.
- 6 Berque, A.(1993) *Du geste à la cité. Formes urbaines et lion social au Japon* Paris. Gallimard, p.26-27.
- 7. _____(1994), sous la direction, *Cinq propositions pour*

- une théorie du paysage. Paris. Champvallon, p.96.
8. Berque, A.(1995) Les raisons du paysage, de la Chine antique aux environnements de synthèse. Paris: Hazan, p.84-85.
9. Foucault, M.(1969)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p.216-231
10. Lassus, Bernard (1994) *L'obligation de l'invention. Du paysage aux ambiances successives* in Augustin Berque (1994), sous la direction, Cinq propositions pour une théorie du paysage Paris · Champvallon. pp.83-106.
11. Panořsky, E (1975, 1924) La perspective comme forme symbolique Paris: Minuit, p.183-196, p.223-233).